

# 영·호남 대학, 가야사 공동 연구

### 순천대·경상대 학술연구모임 ‘남악고고학센터’로 역할 강화 지리산 둘레 유적 복원 진행

순천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최근 가야문화 공동연구에 힘을 모으기로 해 주목된다. 두 대학의 협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야사 연구와 복원 사업을 지시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가야사는 경상도와 전남지역을 두루 아우르는 폭넓은 영역에서 전개돼 영·호남 지역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 “가야사는 경남과 경북뿐 아니라 섬진강 주변과 광양·순천만, 남원과 금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이 남아 있다”며 “가야사 복원사업은 영·호남이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순천대학교(총장 박진성)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총장 이상경)는 최근 2011년부터 두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남악고고학연구회’를 개편, ‘남악고고학연구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가야문화 공동연구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다.

지리산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두 대학은 지난 2011년부터 양 지역 선사·고대문화에 대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악고고학연구회’라는



순천대와 경상대는 최근 가야사 공동연구 등을 진행할 ‘남악고고학연구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박성배 순천대 학예사, 최인성 〃 박물관장, 이상경 경상대 총장, 박진성 순천대 총장, 조영제 경상대 박물관장, 송영진 〃 학예사. <순천대 제공>

학술연구모임을 만들었다. ‘지리산 둘레의 가야유적’을 주제로 여러 차례 세미나도 진행한 바 있다. ‘남악’은 옛 문헌에 따르면 지리산을 지칭한다.

두 대학은 유적조사기관으로 등록된 박물관을 통해 유적조사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오고 있다. ‘젊은 연구자의 육성’이라는 근본과제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영호남지역 가야문화 연구를 위한 최적의 지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두 대학은 ‘유적조사연구, 연구성과의 대국민 공유, 젊은 연구자의 육성’이라고 하는 공통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역량을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진성 순천대학교 총장은 “양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영·호남 간의 화합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학술교류를 바탕으로 한 유적조사연구를 통해 그간 소홀히 취급된 가야유적들이 복원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조선대에 모인 22개국 대학 총장들...제5회 포럼 성료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는 제5회 세계대학총장포럼단 간담회를 최근 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유럽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아프리카 11개국, 아시아 6개국 등 세계 22개국 36개 대학에서 참석한 50여 명의 총(학)장단은 중앙도서관 등 조선대 캠퍼스를 둘러보고 발전상을 확인했다.

강동완 총장은 간담회에서 “조선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학생들의 위대한 DNA를 끌어내 세상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있다”며 “조선대는 평화의 가치를 대학다운 학풍, 그리고 대학을 풍요롭게 하는 인문정신으로서 큰 비전을 실천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대학총장포럼은 대학 교육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국제적 교류협력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 출범했다. 월드문화캠프 등 다양한 국제행사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국제청소년연합이 창설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최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세계대학총장포럼단 간담회에 참가한 50여 명의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 지역 발전 이끄는 대학 창업 지원 프로그램

### 광주대 ‘일반인 창업강좌’ 목포대, 22개 기업 자금 지원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창업·기업지원 부문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학문 영역에서 벗어나 제품 개발 지원부터 일반인 창업지원까지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단(창업지원단)은 최근 일반인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일반인 실천 창업강좌’(주제:성공창업 실천아카데미)를 열고 1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달부터 3주간 광주대 인성과 창업교육실에서 열린 창업강좌에는 분야별 전문가 특강, 멘토링, 현장견학 등 실습형으로 진행됐다. 기술발전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인식,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발굴을 통한 성공 가능성 검증 등을 위해서다.

창업지원단은 오는 9월에도 2차 실천 창업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배출된 15명의 교육 수료생은 광주대 창업지원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창업프로그램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광주대 창업지원단은 “양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영·호남 간의 화합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학술교류를 바탕으로 한 유적조사연구를 통해 그간 소홀히 취급된 가야유적들이 복원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호남지역 가야문화 연구를 위한 최적의 지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두 대학은 ‘유적조사연구, 연구성과의 대국민 공유, 젊은 연구자의 육성’이라고 하는 공통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역량을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진성 순천대학교 총장은 “양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영·호남 간의 화합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학술교류를 바탕으로 한 유적조사연구를 통해 그간 소홀히 취급된 가야유적들이 복원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선정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들은 제품성능개선 및 기술지원, 부가가치제고 및 사업화지원,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 전통기술개선팀 지원 등 세부항목 17개 사업내용에 걸쳐서 총 1억1000만 원을 올해 11월까지 업체별 특성화된 분야에 따라 선정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헬스케어 생활도자 명품화 사업은 목포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풀뿌리 기업육성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 동안 지원받는 사업이다.

한편 목포대 헬스케어도자명품화사업단에서는 14일까지 수혜기업 추가 공모도 실시한다. 총 9개 분야에 걸쳐 참여할 수혜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문의의 목포대 헬스케어도자명품화사업단 061-450-6357.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대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의 ‘일반인 실천 창업강좌’. <광주대 제공>

# 광주 학부모들 “촌지 문화 크게 즐겼다”

### 학교부패인식 지수 2011년 23% → 올해 2%

광주시 초·중·고 학부모의 학교 촌지와 불법 전조금 존재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의미하는 ‘학교부패인식 지수’가 6년 만에 10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9월 ‘2017년 촌지 및 불법 전조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1309명의 초·중·고 학부모 가운데 700명이 응답(응답률 53.5%)했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7%p다.

조사 결과 학부모의 학교부패인식 지수가 지난해 6.6%보다 4.5%p 감소한 2.1%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학부모 학교부패인식 지수는 낮을수록 청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처음 시행된 2011년엔 23.3%였으나 2012년 15.1%, 2013년 12.4%, 2014년 10.1%, 2015년 5.3%, 2016년 6.6%에 이어 올해 2.1%까지 낮아졌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전화 면접을 통한 무작위 표본추출(RDD) 방식으로 실시했다. /이종형기자 golee@

##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급 매”

###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즉시 입주가능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9천 9백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78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나주,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4200만원 (일시불 조건)
- 주인직매

H. 010-3605-5000